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증오의 관계



안톤솔츠

코리아컨설트 대표

국제행사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행사 개최 준비를 위해 한 해 중 꽤 많은 시간을 국내 여리 도시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언제나 내게 큰 행운이었다. 덕분에 나의 흠타운인 광주에서 한국에 있는 어느 도시로든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대구 간의 왕래가 잦아 보니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그 불편한 88고속도로에 대해 생각해봤다. 제한 속도가 60km인데다 약 30km 내의 구간에선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이 특별한 '고속도로'에서 커다란 트럭 사이로 샌드위치가 되어 달리다 보면 도로의 불편에 대한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

88고속도로는 그야말로 한국의 역사를 반영한다. 거의 바뀌지 않은 오늘날의 광주와 대구간의 좋지 않은 관계를 상징하는 기

념들로 이어오는 듯하다. 경제 및 산업 동력을 갖춘 부산, 대구, 울산 그리고 포항 등이 위치한 영남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개발이 잘 된 지역이다. 반면에 호남 지역은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비약적인 경제 기적을 만들어 낸 지난 40년 동안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발전이 뒤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앞서 나갈 수 없었다. 경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수적 힘들

이 세력을 갖고 있는 동안 전라도는 늘 혁명의 거지였다. 최근의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두 지역의 정치적 균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 지역에서 받은 지지는 80% 이상이었던 반면, 호남지역에선 10% 대 지지에 그쳤다.

그래서 88고속도로는 당초 건설 취지와 달리 두 지역이 서로 친해지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듯하다. 상하행선이 일 차선인데다 80km/h 제한 속도인 이 고속도로는 오늘 날 전국을 교차시키는 한국의 빠른 생활상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단 느낌이다. 원래 이 도로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계획되었던 것으로 당시 전두환은 화해의 제스처로 호남인들에게 내놓은 것이다. 법적으로 재선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하겠지만 관심이 없거나 불가능한

도로가 지금껏 실제로 변화되어온 것을 보자면 꽤 흥미롭다. 1984년 개통된 이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도로는 예전과 거의 다름없다. 온 나라 전역이 공사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들인 대구와 광주에 대체로 된 고속도로(심지어 KTX 등 다른 교통편도 없이) 하나 만들지 못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그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지 않나 싶다.

사실 요즘엔 88고속도로에서 공사가 한창이라 가까운 미래에 두 도시간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에선 공사의 진행이 더디고 새롭게 확장되어 완성된 고속도로의 개통은 2015년으로 미뤄졌다. 외국인인 나로서도 지역감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금부터 5년간 영남지역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밝은 미래를 보장받은 듯하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호남 사람들에게 내세웠던 많은 선거공약이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으로 재선하기 위해선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재선이 가능하지 않기 때

문이기도 하겠지만 관심이 없거나 불가능한

일이여 선지, 임기 내에 이 나라의 오랜 오해와 균열을 극복하고 진정 화합된 나라로 만들려는 위업의 기회를 누구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장차관 명단은 전체적인 균형보다는 역시 확실한 지역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듯하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균열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과연 두 지역 간의 관계가 개선될지 의문스럽다.

사실 익명에 개최될 국제 행사 준비를 위해 최근 대구를 방문하면서 두 도시간의 불신을 개인적으로도 느낄 만한 계기가 있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시 관계자들과 토론을 하던 중 모두들 나를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며 앞으로 있을 다른 국제 행사에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후 그 중 한 사람이 나의 명함을 다시 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 이제서야 봤네요. 회사가 광주에 있으신네요. 음, 그럼 아마도 함께 일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거리가 문제라는 것일까? 사실 대구에서 보면 광주가 서울보다 더 가까운데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새롭게 고쳐질 고속도로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 도시간의 간극을 메울 수 없는 엄청난 틈이 존재해서일까?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안고 있는 고민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박'이라는 데 있다. 단체장의 치적용도 다분하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이 있는데다 분양 수요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벌이고 있어 재정 패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해 있으나 지자체가 선(先) 사업 후 심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채 발행도 규정을 교묘히 피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산단의 투자 효율성과 고금리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보증, 자금 지원, 전문가 파견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농촌지역의 유일한 살길이 산단지 조성밖에 없어 몸부림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문제는 이를 시·군 외에 17곳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무리수는 분양만 제대로 되면

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마땅하다

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종양당과 지역 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돈 공천 등 폐단도 많았다. 당선 뒤에도 다음 공천을 위해 공천권을 편 지역구 의원의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정당공천 제도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함은 물론 정치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정당공천제에 대한 각계의 폐지론이 끊이지 않았다. 18대 대선 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야가 공히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인정한 것이다.

여야는 이번 재보선이 정당공천제 폐지 실현 무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재보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일정상 어렵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천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때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국내에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대폭 인상하자는 방안이 나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뉴욕시장이 담배 진열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욱이 균종을 쳐서 발각시 크기가 작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거대 자궁근종이 꽤 내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평소 정기검진을 통해 자궁건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질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통증을 단순한 생리통이나 배란통으로 일상적으로 치부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 중의 하나로 우리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은 가정의 행복과 직결된 것으로 항상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균종을 쳐서 발각시 크기가 작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거대 자궁근종이 꽤 내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평소 정기검진을 통해 자궁건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질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통증을 단순한 생리통이나 배란통으로 일상적으로 치부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 중의 하나로 우리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은 가정의 행복과 직결된 것으로 항상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